

광주 FC “패스축구”



도전의 2013시즌을 맞은 광주 FC 선수단이 후지산이 보이는 일본 시즈오카에서 1차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22일 귀국했다. 광주는 오는 29일 중국 광저우에 캠프를 치르고 다음 시즌을 시작한다. <광주 FC 제공>



여범규 감독

여범규 감독 “세밀한 패스·빠른 축구로 1부 승격 이루겠다”

일본 전훈 마감 ‘후지산 결의’

29일 전력완성 위해 중국으로

수단의 분위기에 좋은 점수를 줬다.

여 감독은 “날씨도 좋았고, 숙소시설이나 음식 등도 훈련하기에 최적이었다”며 “이번 훈련에서는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다. 시즌을 앞두고 주전선수들이 (팀을) 많이 나갔다. 그동안 경기에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못 나갔던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많이 도와주겠다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썼다. 선수들의 의욕도 넘치고 좋은 분위기에서 훈련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여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의 빠른 축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여 감독은 “세밀한 패스, 빠른 축구를 구

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축구, 패스 축구를 하자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이해하고 따라준 게 만족스럽다. 수비에서부터 미드필더까지 만들어오는 과정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16박17일, ‘여범규 스타일’의 토대는 만들었지만 짧은 시간이었던 만큼 앞으로 맞춰가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

여 감독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조지릭에 신경 썼겠다. 골키퍼 부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광주에 중요하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포지션은 골키퍼이다. 베테랑 수문장 박종현의 이적으로 공백이 생겼지만 박종문 골키퍼 코치를 영입했고, 루키 골키퍼 김지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크다.

여 감독은 “신인들 중에서 골키퍼 김지성, 미드필더 황지준·정동진이 내가 원하는 축구

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 김지성 같은 경우에는 윤기해와 함께 주전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격도 활발하고 순발력도 있다”고 밝혔다.

새 얼굴 황지준, 정동진과 함께 이적생 정경호는 스피드 축구의 주요 조각이다.

여 감독은 “일본에서 두 차례 연습경기를 했는데 수비에서 빠르게 나오지 못하는 면이 있고, 공격진에서 측면으로 나갈 때 크로싱이 늦었다. 스피드를 강조하고 있는데 빠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 부분을 정경호에게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12~14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전력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4일까지 휴식을 취한 선수단은 26일 광주로 귀소집돼 28일 오전까지 훈련을 이어간다. 29일 중국 광저우로 건너간 선수단은 2월 22일까지 생선싸움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3일 새벽(한국시간) 브래드퍼드 시티 선수들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애스턴 빌라를 꺾고 2012-2013 리그컵 결승 진출을 확정하며 기뻐하고 있다. <브래드퍼드 시티 FC 홈페이지>

기적의 그라운드



잉글랜드 프로축구 4부리그(리그2) 소속의 브래드퍼드 시티가 프리미어리그(1부리그)인 애스턴 빌라를 꺾고 2012-2013 캐피탈원컵 결승 진출을 확정하며 ‘영국판 칼레의 기적’을 일궈냈다.

브래드퍼드는 23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캐피탈원컵 준결승 2차전에서 1-2로 아깝게 졌다.

하지만 9일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한 브래드퍼드는 1, 2차전 합계 4-3으로 애스턴 빌라를 물리치고 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4부리그팀 브래드퍼드, 리그컵 결승 진출 ‘영국판 칼레의 기적’ 대 반란 기성용의 스완지와 결승 가능성

창단 이후 첫 캐피탈원컵 결승 진출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로써 브래드퍼드는 24일 새벽 4강 2차전을 치르는 스완지시티-웰시 승자와 다음달말 영국축구의 성지인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1903년 창단해 올해 110주년을 맞는 브래드퍼드는 창단 초기 2부리그부터 시작해 1908-1909시즌 처음 1부리그로 승격한 유서깊은 팀이다.

브래드퍼드는 1911년 FA컵에서 우승하며 팀 유일의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1921-1922 시즌 2부리그로 강등된 뒤 하위리그를 전전하며 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골키퍼인 매트 듀크도 “기뻐서 말조차 안나온다”며 “선수들과 팬 모두 모두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자축했다. /연합뉴스

만 1999~2000시즌 1부리그에서 꼴찌로 전락해 한 시즌만에 또다시 2부리그로 강등됐고, 이후 재정난까지 겹치며 4부리그까지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브래드퍼드는 이번 시즌 캐피탈원컵에서 ‘프리미어리그 팀킬러’로 변신해 위건 애슬레틱(16강), 아스널(8강), 애스턴 빌라(4강)를 차례로 꺾고 결승까지 오르는 기적을 일궈냈다.

지금까지 캐피탈원컵에서 4부리그팀이 결승에 오른 것은 1961-1962시즌 로체데일 AFC(준우승)에 이어 51년만이다.

지난 9일 애스턴 빌라를 상대로 홈에서 3-1 완승을 거둔 브래드퍼드는 이날 준결승 2차전에서 전반 24분만에 선제골을 내주며 힘겹게 출발했지만, 후반 10분만에 제임스 헨슨의 헤딩 동점골이 터지며 ‘기적’을 예감했다.

브래드퍼드는 후반 종료직전 한 골을 더 허용해 1-2로 패했지만 1, 2차전 합계 4-3을 만들어 결승 진출의 ‘영국판 칼레의 기적’을 연출했다.

‘칼레의 기적’은 1999-2000 시즌 프랑스 FA컵에서 4부리그팀인 칼레가 강호 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까지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한 사건이다.

이후 약탈이 강팀을 꺾을 때마다 ‘칼레의 기적’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용어가 됐다. 캐피탈원컵에서 쟁쟁한 프리미어리그 팀을 차례로 격파한 브래드퍼드 역시 ‘칼레’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칼레의 기적’을 연출한 필 파킨슨 감독은 “애스턴 빌라가 공격적인 팀이라 수비에 허점이 생길 것을 예측했다”며 “경기전에 선수들 모두 역사를 만들어 내라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골키퍼인 매트 듀크도 “기뻐서 말조차 안나온다”며 “선수들과 팬 모두 모두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자축했다. /연합뉴스

윤석영은 왜 풀럼 입단테스트 거절했나

올림픽에서 이미 기량 입증

국가대표 선수 시험 제의 불쾌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윤석영에 대한 잉글랜드 풀럼의 입단 테스트 제의를 거절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최근 풀럼에서 윤석영의 입단 테스트를 제의하는 초청장을 보냈으나 바로 거절의사를 전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관계자는 “공식 오퍼가 아니라 단순한 초대장”이라며 “구단으로서의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런던올림픽에서 기량을 입증하고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선수를 불러 시험하겠다는 제의가 무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 입단

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조재진이 풀럼의 요청으로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으나 결국 입단하지는 못했다.

전남은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윤석영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구단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전남은 또 풀럼의 입단 테스트는 거절했지만 윤석영의 해외 진출은 적극 도울 계획이다. 전남 관계자는 “본인이 원하면 해외에 보낼 것이다. 70만 달러(약 7억 5000만원)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어 이 금액 이상을 제의하는 유망팀이 있으면 협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폭 풀백인 윤석영은 현재 전남 선수단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전지훈련을 치르고 있다. 한편 런던이 연고지인 풀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4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윤석영

원조 ‘외계인’ 호나우지뉴

브라질 대표팀에 재발탁

‘외계인’ 호나우지뉴(33)가 브라질 축구 대표팀에 1년여 만에 재발탁됐다. 루이스 클리베 스킨라 브라질 대표팀 감독은 다음 달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 나설 선수 20명 명단을 발표했다. AP통신, AFP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 명단에는 호나우지뉴도 포함됐다.

호나우지뉴는 지난해 2월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에서 대표팀에 발탁된 후 1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8강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터뜨린 결승골로 잉글랜드 팬들에게 각인된 호나우지뉴는 현재 브라질 프로축구 아틀레치쿠 미네이루에서 뛰고 있다.

한편 잉글랜드 프로축구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골키퍼 줄리우 세자르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카카(레알 마드리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카디프 김보경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 ‘주간 베스트 11’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시즌 2호골을 터뜨린 김보경(카디프시티)이 리그 주간 베스트 11인 ‘이주의 팀’에 뽑혔다.

챔피언십은 23일(한국시간) 한주간 열린 경기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11명으로 구성된 이주의 팀 22주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왼쪽 윙어로 김보경을 선정했다.

챔피언십은 “김보경은 골대를 맞고 뛰어난 동료의 슈팅을 잘 처리해 득점으로 연

결, 카디프시티가 블랙풀을 2-1로 제압하는데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김보경은 20일 챔피언십 28라운드 블랙풀과의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9분 선제골을 터뜨려 시즌 2호골을 신고했다.

지난해 7월 카디프시티에 입단한 김보경이 주간 베스트 11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선수로는 지난 1월 19주차에 뽑힌 이청용(불턴)에 이어 2번째다. /연합뉴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후원 : 남해고속

흑산도상리봉 등반및 자유관광

- 출발일** 당일(찍수날 출발)
- 여행비** 주중 88,000원 주말 98,000원
-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흑산도 왕복쾌속선 흑산도 중식 제공
-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홍도 / 흑산도 특가 이벤트

- 출발일** 3월1일~2일(1박2일)
- 여행비** 주중 158,000원
-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 흑산도, 홍도 왕복쾌속선/ 숙박비 (5인이상 합숙)/ 식사비(4식)/ 홍도유람선/ 여행자보험
-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